

홍당무의 경마오디세이

■ 군마

힘센 말 대명사 '그레이트 호스' 대형종 마필 '사이어 종'의 조상



한국전쟁 명군마 '레글리스'.

인간이 등자를 발명하면서 전쟁에서 말은 더욱 중요한 수단이 된다. 등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단순히 무거운 병장기를 나르거나 군수물자 등을 나르는데 이용하다가 등자가 발명된 후 말에 직접 올라 전장에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승자는 등자를 활용해 말 위에서 효율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창이나 칼을 들고도 자유자재로 적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말이 전쟁에 동원되던 초기에는 마구와 장비가 비교적 간단했다. 기승자는 작은 창과 칼로 무장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힘이나 크기보다는 속도와 기민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전쟁 때 힘센 말 필요…대형종 '사이어종'

시간이 지나 전쟁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힘센 말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스·로마시대의 '채리엇(chariot)'이 좋은 예이다. '채리엇'은 일종의 2륜 마차로서, 말을 동력으로 한 마차의 위에 병사들이 탑승해 칼·창으로 상대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무장한 전사 2~3명을 태운 전차를 끌기에 초기에 주류를 이루던 기민한 말들은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에게도 갑주(甲冑)를 입히기 시작하면서 더욱 강한 말이 필요했다. 중무장한 병사와 함께 완전한 갑주까지 입어야 할 '힘이 센 말'을 당시에는 '그레이트 호스'라고 불렀으며, 이 말들은 오늘날 대형종 마필인 '사이어 종'의 조상이다. 보다 최근인 1,2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이어종보다는 작았지만 중간크기의 말들은 박격포나 군수물자를 나르는 임무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병연대는 군대에서 주된 전력이었다. 당시 영국군은 10만 명이 넘는 기병을 거느리고 있었고 전쟁에서 기민한 기병연대가 자국을 구원해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전쟁의 상황이 돌격이 주를 이룬던 기동전에서 참호전 기반의 소모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된다. 참호와 날카로운 철조망, 그리고 기관총 때문에 기병연대의 돌격이 성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병대의 돌격전술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로 전락한 것이다. 그 결과 1차 세계대전에 서만 무려 800만두가 넘는 말이 죽었다고 전해진다.

●2차대전 이후 군마 수요 크게 줄어

1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교훈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도 말이 전쟁에 동원되었지만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크게 줄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전쟁에서 말표가 등장하고 전차가 등장하는 등 말의 전투력을 대체할만한 기기가 대거 발명되면서 말은 전쟁에서 설자리를 잃어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도 수단의 민병대나 중동 등 일부 분쟁지역의 경우, 지형이 험준한 지역에서의 작전수행 시 말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기병연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다형스럽게도 의전용으로 국한된다. 그저 고색창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인류의 전쟁사에서 말들이 세운 혁혁한 공을 생각하며 기병대의 의전행사를 본다면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경마칼럼니스트

렛츠런재단 현명관회장 인맥 인사 도마위

한국마사회 국감, 무슨 얘기 오셨나?

삼성물산·행사 출신 등 현 회장 측근 다수 저노동·고연봉…마사회 연봉체계 지적 주민동의 못받은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도

'렛츠런재단 이사 특정 인맥' '마사회 신의 연봉' '외국인 전용 마관발매소 추진'…, 지난 5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키워드들이다. 이날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마사회의 환부이자 채찍질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 환부만 제대로 드러내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1등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지름길이기도 하다. 정점이 된 5대 논란 키워드를 살펴본다.

●'렛츠런재단' 이사 특정 인맥 논란

마사회가 사회공헌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3월 설립한 '렛츠런재단'의 이사 전원이 삼성 또는 전경련 등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렛츠런재단' 이사들의 경력을 보면, 7명의 이사들 중 4명은 각각 삼성물산, 제일기획, 중앙일보 등 삼성 출신이었다. 2명은 전경련 출신, 나머지 1명은 정치권 인사였다. 현 회장이 걸 어온 삼성물산 대표이사, 전경련 부회장, 한나라당 제주도지사 후보 등의 길과 겹친다. '렛츠런재단'은 지난해 기준으로 마사회 기부금 예산 149억 원 중 50%를 차지하는 75억원 이 '렛츠런재단' 사업비로 집행됐다.

마사회 내부인사도 특정 인맥 논란이 일었다. 마사회 본부장 4명 가운데 1명은 현 회장과 같은 삼성물산 출신이고, 비상임이사 8명 가운데 3명은 현 회장과 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이 가운데 현 회장과 같이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삼성, 전경련 경력 등이 전부 중복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지난 5일 경기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되는 인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마사회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마사회 평균연봉 8500만원 '신의 연봉' 논란

마사회의 고액연봉도 도마에 올랐다. 마사회 직원 평균 연봉은 8500만원으로 복리후생비를 더하면 9000만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공기업 중 1,2위를 다투고 100대 기업까지 포함해도 5위권에 든다. 그러나 민간기업과 노동 강도를 비교하면 많이 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고연봉인데 노동 강도가 약하고 직업안정성은 강하게 보장되는 구조가 마사회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마사회 역대 연봉자는 192명으로 전체 직원의 21.5%를 차지했다. 2010년(94명)과 비교하면 마사회에 역대 연봉을 받은 직원은 2배가량 늘었다. 연봉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형평성 있는

연봉체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외발매소 이전 논란

마사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2019년까지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등의 광역지자체와 서울의 강서, 송파, 은평구 등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작성된 마사회의 '증정기 개설 및 운영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9년까지 장외발매소를 전국에 총량제 제한을 받는 32개소 범위 내에 설치하되, 신설 및 이전 우선지역으로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등의 광역지자체와 함께 서울의 강서, 송파, 은평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전용 마관 장외발매소 추진 논란

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마

관 장외발매소'도 논란이 일었다. 마사회는 오는 12월 서울 셰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외국인 장외발매소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지역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설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시장이 과연 투자한 것에 맞춰 형성될지 불확실하다며 한 군데 너무 크게 투자하지 말고 규모에 맞게 운영하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외국인 장외발매소를 추진하면서 장외발매소 일반 승인 요건이었던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동서, 지역사회 영향 분석,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농식품부에 요구했는데 예외 조항으로 가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현 회장은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만드는 건 우리 경마를 사형 업종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보자는 발상"이라며 "워커힐 외국인 장외발매소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확장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공헌 축소 논란

마사회의 기부금을 비롯한 농어촌 복지 출연 등 사회공헌 실적이 대폭 감소했다. 요양원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등에 지원돼 오던 마사회의 기부금은 2010년 209억원에서 지난해엔 149억원으로 28%인 60억원이 감소했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및 학습동아리 등에 지원되었던 농어업복지 지원금은 2010년 414억원에서 올해는 한 톨도 지원되지 않았다.

마사회법 제42조에는 사업이의 중 적립되는 특별적립금을 말산업 및 축산발전, 농어업 발전에 사용해야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해마다 경마로 인해 135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왔고 당기순이익만 해도 2400억원(2014년 기준)에 이른다.

연세호 기자 so@donga.com

말체험·포토존·북카페…“렛츠런 야간가을축제로 오세요”

■ 렛츠런파크 서울, 가을축제 즐기

14~18일까지 요일별 체험 이벤트

렛츠런파크 서울의 가을은 축제 한마당이다. 특히 10월 14~18일은 렛츠런파크 서울 가을야간축제의 꽃이다. 렛츠런야간가을축제는 말체험, 먹거리, 포토존, 북카페 등 다양한 체험존과 '행운의 길', '자연의 길', '상상의 길', '즐거움의 길'로 구성된 야간 산책로로 구성됐다. 요일별 축제 즐기는 포인트를 소개한다.

●14일(수) 가을을 듣다

14일엔 술밭무대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동안 재즈밴드와 브라스밴드 공연이 있다. 추천 포인트는 킹스브라스밴드 내한공연 관람. 꽃마차 타고 청동마상까지 이동(정문) 한 뒤 소원 빌고 기념촬영 (위시볼 스퀘어)한다. 이후 '해피데이' '킹스브라스밴드' 공연 관람 (오후 6시20분~ 8시) 한 뒤 간식 타임(푸드존)을 즐긴다. 3구간 체험존에서 펼쳐지는 말종이 인형 만들기, 말먹이 주기 체험은 덤이다.

●15일(목) 가을을 춤추다

추천 포인트는 말하는 숲, 북카페, 스윙재즈댄스 관람이다. 소원빌고 기념촬영 (위시

볼 스퀘어) 후 말하는 숲에서 사연과 음악 신청, 낙엽 책갈피 만들기 체험 (오후 6시 20분~ 7시)을 한다. 기념사진 촬영 (매지세도우, 말포토존)과 말종이 인형 만들기, 말먹이 주기 체험 (체험존) 후 술밭공원에서 스윙재즈댄스 공연 관람(오후 8시~8시30분)한다.

●16일(금) 가을을 말하다

추천 포인트는 개막식 및 인문학 콘서트 관람.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개막식 공연 및 퍼레이드 관람하고 체험존에서 진행되는 낙엽책갈피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체험 후 술밭공원 유영단 교수 인문학 콘서트 관람(오후 7시30분~ 9시)한다.

●17일(토) 가을을 달린다

가을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추천 포인트는 경주로 마라톤 및 스윙재즈댄스 공연 관람. 꽃마차를 타고 청동마상까지 이동(정문) 한 뒤 소원빌고 기념촬영(위시볼 스퀘어)을 한다. 체험존에서 말종이 인형 만들기, 말먹이 주기 체험을 한 뒤 주로 마라톤 관람, 음악 듣기 (말하는 숲, 북카페) 스윙재즈댄스 공연관람 (술밭공원, 오후 8시~)으로 주말밤을 즐긴다.

●18일(일) 가을을 타다

추천 포인트는 말체험교실 참여. 꽃마차 타고 청동마상까지 이동(정문)한다. 말 체험교실 참여(술밭공원)와 재즈밴드 '해피데이' 공연관람(술밭공원) 한 뒤 간식타임(푸드존)으로 출출한 배를 달랜다. 이후 낙엽 책갈피 만들기 체험 및 말종이 인형 만들기, 말먹이 주기 체험한다.

연세호 기자

금요경마 출마표 | 9일

부산 경마

마번	마명	성별/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 1경주 (1000M) 국6 별정 일반									
발주:11:40									
1	영광의마	수	55	송경윤	김병학	추입	보통	※	※
2	그리온드	암	53	노주무	김창국	선형	보통	○	○
3	로블라이	암	50	이용호	강병은	선형		○	○
4	해인마	암	52	김정웅	구영준	선형	양호	○	○
5	서든세실	암	53	최시대	토마스	선형	우수	★	★
6	라운블루	수	55	김동영	권승주	선형	양호	△	△
7	승전보	암	50	진경	구영준	선형		※	
제 2경주 (1200M) 국6 별정 일반(안)									
발주:12:05									
1	응달하	암	54	설동복	김길중	추입			
2	이현팔	암	54	양영남	김영관	선형	우수	★	○
3	코카스타	암	53	송경윤	김남중	추입			
4	테스페라도	암	50	진경	강형근	선형	양호	○	★
5	랑기팔	암	53	이상재	윤영기	선형			
6	막강질주	암	54	다나카	문제복	선형	보통	○	○
7	폭풍거탑	암	54	김어수	임동창	선형		※	
8	영웅울격	암	53	최시대	안우성	선형	보통	※	△
9	가력야영	암	54	보렐리	강병은	선형		△	
10	인트로	암	53	김동영	방동석	선형	양호		※
제 3경주 (1200M) 국6 별정 일반									
발주:12:45									
1	그레이트스	수	55	이상재	권승주	자유			
2	골프판타지	암	53	김도현	이상영	추입			
3	마하해라	암	53	김홍일	김병학	선형		※	
4	에게	암	53	노주무	민정기	선형	보통	※	※
5	스트로명	암	53	다나카	문제복	선형	양호	○	△
6	킹스플즈	거	55	보렐리	라이스	선형	양호	★	○
7	골드바니	수	53	오영일	임동창	추입			
8	백만달이	거	55	박금만	김창국	선형	보통	△	○
9	영원축제	수	54	최시대	백광열	선형	우수	○	○

마번	마명	성별/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제 4경주 (1300M) 국6 별정 일반									
발주:13:25									
1	우승희고	거	55	보렐리	최기홍	추입		△	
2	베다리행운	암	50	진경	유종열	선형		○	○
3	한일외길주	수	54	박금만	윤율리	선형	우수	○	○
4	한희마	수	55	다나카	문제복	선형	양호	★	★
5	강호아연	암	53	노주무	토마스	선형			
6	인더백	거	55	송경윤	김영관	추입	양호	○	△
7	킹코드	거	55	김동영	방동석	추입	보통		
8	마이어링	거	55	구민성	김창국	자유	보통		※
제 5경주 (1200M) 국5 핸디캡 일반									
발주:14:15									
1	드라마	암	51	박금만	임한	추입			
2	해피	수	53.5	송경윤	김남중	선형			
3	광속거탑	거	53.5	조창국	양귀선	자유			
4	자유로운행	암	51	진경	강형근	선형		○	※
5	메이디엘	암	53	이상재	김창국	선형	우수	★	★
6	메이디엘	거	55	다나카	라이스	선형		○	
7	한라리물	암	54.5	이상재	문제복	선형	보통	△	
8	누리베	거	55.5	보렐리	윤율리	선형	보통	△	
9	스탈리외	암	51	이용호	백광열	선형	양호	○	△
10	산타	거	54	설동복	강병은	추입			
11	프렌치보이	거	54.5	양영남	한상복	선형	보통	○	○
12	퍼스트킹	수	53.5	최시대	권승주	선형	양호	※	○
제 6경주 (1800M) 국4 핸디캡 일반									
발주:15:05									
1	무비소나타	거	52.5	김도현	임한	추입		○	○
2	콘하늘	수	51	박금만	김창국	선형			
3	중앙최강	거	55	설동복	김길중	선형			
4	모양강	수	52.5	이용호	이정표	선형	보통	△	○
5	메이디	수	51	진경	김영관	선형	양호		△
6	강탈메이	거	54.5	보렐리	임금만	선형		★	
7	리얼리강	수	53.5	최시대	백광열	선형	우수	○	○
8	동남천하	거	56	다나카	권승주	선형	양호	※	★

마번	마명	성별/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석	유	정
9	해피사운드	수	53	송경윤	김병학	선형		△	
10	달양현사	암	51	조창국	양귀선	추입	보통		○
11	선더레이	수	51	서인성	김재섭	자유			
제 7경주 (1800M) 혼3 핸디캡 일반									
발주:15:55									
1	퀵스타운	거	53.5	조희원	장세한	추입	보통		
2	세글자	수	51	진경	백광열	추입	양호	△	★
3	타타비	암	51	이상재	김병학	선형	보통	○	※
4	산한재	수	52	이용호	민정기	선형	양호	○	○
5	다섯	수	54	보렐리	윤율리	선형	우수	★	△
6	한반도정복	수	53	설동복	김길중	선형		※	○
7	해니버	수	53	다나카	이상영	추입			
8	여왕	암	52	김재경	장세한	선형		※	
9	비버리	수	54.5	김정웅	유종열	자유			
제 8경주 (1000M) 2등급 핸디캡 일반									
발주:16:45									
1	유성마	수	51.5	이용호	최기홍	선형	우수	★	○
2	해님	암	52	김동영	임동창	선형	보통	○	※
3	미스터	수	54.5	보렐리	이정표	자유			
4	파워	수	52.5	설동복	최기홍	추입	보통	○	△
5	메이디	암	53	진경	김영관	선형	양호	△	★
6	초복	수	51	조창국	임동창	선형			
7	슈프림	암	51	최시대	안우성	선형	양호	○	△
제 9경주 (1400M) 국5 핸디캡 일반									
발주:17:10									
1	강한재	거	51.5	양영남	한상복	추입			
2	한글재	거	51	진경	장세한	추입	양호		
3	그랜드	암	56.5	조창국	양귀선	추입			
4	대보유	암	52	김정웅	이민석	선형	양호		